

이해랑 선생 팔당댁 원유회

팔당댁 원유회



에꼴드 빠리 그룹, 다다 전위예술가 그룹, 라마마 연극집단 등 우수한 예술가들 모임처럼 서울의 희미한 가로등 그늘 아래 카페에 즐기차게 모여 맥주잔을 기울이며 갑론을박(甲論乙駁)하던 시절이 있었다. 고인이 된 김동훈을 비롯, 임영웅, 권오일, 유민영, 유용환, 노경식, 윤대성, 손숙, 김문환, 김성옥 등과 때로는 김동원, 차범석, 장민호, 김정옥, 강유정 선생들도 의기투합 가담하는 신바람 나는 모임이었다.



이해랑

유용환

김동원

이해랑

이태주

이들 한 가운데 우뚝, 주장적인 이해랑 선생이 계셨다. 그로부터 집합력이 떨어지면 유용환이 해당 멤버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린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압구정동 옥혜경 <만두집>에서 일차 만나고, 2차는 근처 맥주 집으로 갔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일이다. 술값은 이해랑 선생의 너털너털해진 수표가 꿈무늬 호주머니에서 들락날락했지만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우리를 가운데 누군가가 내곤 했다. 그러나 일년에 몇 차례 이해랑 선생은 아들의 팔당 별장에서 갖는 원유회, 예술인 마을에 있는 선생댁에서의 생일잔치나



신년하례, 그리고 아들 회사 봉고를 끌어내어 떠나는 유람 행사 때마다 푸짐하게 술과 산해진미를 쏟아내셨다. 그 앞에서 우리들은 이해랑 선생의 깊은 생각에 고개가 수그러졌지곤 했다.

술도 술이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연극의 현실에 대한 이해랑 선생의 날카로운 비평적 담론이었다. 이해랑 선생은 특히 당시 급진적인 비평가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담론이 끝나면 “이거야! 정말 만나봐야지, 아무 말이나 해볼 걸...” 이해랑



장민호

선생의 십팔번 노래가 시작된다. 그러면 차범석 선생의 두둥실 춤이 이어지고 배우 손숙의 노래가 뒤따랐다. 나는 토스카니처럼 지휘한답시고 양팔을 미친 듯이 흔들고... 그 때가 되면 팔당 강물에 서산해가 아름답게 지는 것이었다.

위 사진들은 그 원유회 때의 장면들이다. 🌈